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① 서울 종로구 조계사 회화나무, 백송



국경 없는 나무가 건네는 말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대웅전 앞뜰에 서면 하늘로 오르는 나뭇가지를 타고 색색의 등들이 열매처럼 줄지어 있는 회화나무와 마주하게 된다. 사찰만 보겠다고 온 일반인들도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나무의 수령은 400년에서 500년으로 추정하는데, 지난 동짓날 보니 섬섬옥수로 갈라진 가지 끝에 뭉치로 붙어 있는 듯한 염주상(念珠狀) 열매들이 시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콩과 식물인 회화나무의 원산지는 현재 중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의 식물지에는 한국과 일본이 원산지라는 기록이 있다며 자생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조계사 중심점인 대웅전에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빛나고 있는 회화나무가 이곳에 있게 된 연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조선시대 의료 담당 기관이었던 전의감(典醫監) 관리들이 중국을 오가며 회화나무 종자를 들여왔고, 의약 개발을 위해 곳곳에 심은 약초 사이에 이를 묻어두었는데, 어느 날 자연 발아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자리는 본래 왕자들의 별궁이었고, 이후 한 양반가의 저택이었다가 보성학교에서 지금의 조계사가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계속 살아남은 나무였다는 것이다.

후자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조선시대까지 나무에게도 신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집 마당에 회화나무를 심으면 큰 학자가 나온다고 해서 학자수(學者樹)로도 불리는 이 나무는 궁궐이나 서원 혹은 그야말로 지체 높은 양반들만 식재하고 볼 수 있었고, 서민들에게는 언감생심이었다. 그 기원은 중국 당나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거시험을 보았던 시기가 회화나무 꽃이 누렇게 변색해가는 음력 7월인데, 이를 '괴추(槐秋)'라고 하였단다. 봄여름의 꽃들이 거의 지고 없을 무렵 매혹적인 자태를 가진 꽃이 남아 있어 이 나무를 보며 합격을 희망하였고, 이후 벼슬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꼭 심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회화나무가 자라고 있는 터전은 서열 높은 분들의 거주지였다고 보면 되는데, 그 출발이 중국이라서 그런지 이를 두고 모화(慕華)사상에서 기인한 문화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회화나무 이름의 유래에서도 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회화나무를 한자로는 괴(槐) 혹은 괴수(槐樹)라고 쓰고, 꽃은 괴화(槐花)이다. 괴화를 중국어로 발음하면 화이화(huáihuā)가 되는데, 이 화이화에서 회화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한을 꿈꿀 수 있는 공간에서 모든 나뭇잎들이 골고루 햇빛을 받기 위해 겹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가지를 뻗는 기개를 보기만 해도 뭉클한 조계사 회화나무에 인간의 역사가 틈입하다 보니, 문득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불쑥 인다.

나무는 국경이 없다. 다만 국경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 때문에 자생식물, 귀화식물, 외래식물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지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초 에너지를 만드는 나무를 계속 보니 국경을 넘어선 위대한 가르침을 설파한 부처님에게 감사를 드리게 되며 대웅전 옆 백송으로 걸음을 옮긴다.

수령 500년으로 추정하는 이 백송도 회화나무처럼 약초 사이에서 자란 나무였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름과 관련해서는 어릴 때는 녹색인데 어른이 되면서 나무껍질이 하얀 레이스처럼 조각조각 갈라져 백송(白松)이 되었다. 줄기는 흰빛이지만, 하늘을 이고 있는 바늘잎은 늘 푸르다. 그래서 소나무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나무의 원산지도 중국이고, 들어온 시기는 조선시대이고, 역시 회화나무처럼 양반집에만 심을 수 있는 나무였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해가 자연광을 쏟기 시작하면 순백색의 불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두 손을 모으게 된다. 그 느낌을 더 깊숙이 흡수하고 싶어 빨간 등들이 사각으로 둘러쳐진 곳에 바싹 다가가 그 틈 사이로 또 눈을 크게 뜨고 나무껍질을 보면 깜짝 놀란다. 잘려나간 줄기도 보이지만 군데군데 나무가 안고 있는 치료의 인공물질에서 이질감이 돋아오며 아픈 연민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한다. 하지만 본래 나무는 속이 죽은 세포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서도 동물보다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면, 나무에 외경심이 스미게 된다.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이 크고 작은 숲에서 종족이나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을 보면 나는 경배심이 든다. 그들이 홀로 서 있으면 더 큰 경배심이 생긴다. 그들은 고독한 사람들 같다"라는 글이 있다. 개체의 나무들이 건강한 숲을 일구는 것은 땅 아래에서 서로 연결된 뿌리들이 균사를 통해 양분을 주고받는 도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홀로 꿋꿋이 자라고 있는 고령의 회화나무와 백송은 그 존재만으로도 숱한 깨달음을 준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① 문태준의 '맨발'

"나는 지금 얼마만큼 맨발의 삶 사는가"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품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문태준 시집, 〈맨발〉 창비 2004–

이 시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 맨발이다. 맨발로 와서, 맨발로 걷다, 맨발로 간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의 삶이다. 이 시를 처음 대면한 순간, 나는 가슴이 서늘했다. 명품양말과 명품구두와 명품운동화로 칭칭 감고 사는 내 발을 보았기 때문이다. 문태준 시인은 그런 나를, 다음과 같은 말로 점잖게 타이르고 있었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그런데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딘 적이 있었던가. '양식을 탁발' 하다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던가.

이 시가 절묘한 것은, 그리고 (보편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삶의 기승전결을 불교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붓다의 삶을 몰랐다면 시인은 결코 이처럼 탁월한 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문태준 시인은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어물전에서 속살을 내밀고 있는 개조개를 보았다. 그리고 그 개조개가 밖으로 내민 속살을 보고 붓다의 마지막 삶인 '곽시쌍부(槨示雙趺)'를 떠올렸다. 곽시쌍부는 붓다가 열반에 들었을 때 6일 늦게 도착한 마하가섭이 붓다의 법구도 보지 못한 채 관을 붙들고 슬피 울자 붓다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어 가섭에게 마음을 전한 사건을 말한다.

불교에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는 것이 있다. 선종 계열에서 붓다가 세 번에 걸쳐 가섭에게 마음(법맥)을 전한 이야기(사건)를 말한다.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와 영산회상거염화(靈山會上擧拈花), 니련하반곽시쌍부(泥連河畔槨示雙趺)가 그것이다. 다자탑전분반좌는 붓다가 급고독원에서 설법을 하는데 가섭이 해진 옷을 입고 늦게 도착하자 앉은 자리의 반을 내주며 옆에 앉으라고 한 사건이다. 영산회상거염화는 붓다가 영산회상에서 금색 바라화(波羅花)를 올리자 오직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은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위에 언급한 니련하반곽시쌍부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맨발'이었을까. 이것은 평생을 길 없는 길 위에서 맨발로 보낸 붓다의 삶을 상징한다. 또한 무소유를 상징하기도 한다. 붓다는 성(城)을 넘어 출가할 때 금·은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맨발로 출가했다. 그리고 80평생을 길 위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며 걸식했다.

이 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속도다.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맞다. 속도는 탐욕에 비례한다. 속도가 빠른 삶은 탐욕도 크다. 그러나 속도가 느린 저속(低速)의 삶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지족(知足)의 삶을 산다. 피에르 쌍소가 느림의 삶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쌍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삶을 행운의 기회로 여기는 까닭은 매 순간 살아 있는 존재로서 아침마다 햇살을, 저녁마다 어두움을 맞이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만물이 탄생할 때의 그 빛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나 불만스러운 표정의 시작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속도가 빠른 삶은 '매 순간 살아 있는 존재'로서 아침 햇살과 어두움이 주는 '저녁의 행복'을 찾아낼 수 없다. '매 순간 살아 있는' 아침 햇살을 만나고 '어두운 저녁의 행복'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를 발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느린 저속의 삶이 필요하다.

그 속에 바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이 있다. 자유로운 삶, 정직한 삶, 온전한 삶이 있다. 붓다의 삶은 물론 예수와 간디의 삶도 모두 맨발이었다. 그들 모두 맨발로 태어나, 맨발로 걷다, 맨발로 갔다.

맨발은 또 인욕(忍辱)의 삶을 뜻하기도 한다. 맨발은 아프다. 맨발로는 오래 걸을 수 없다. 금방 상처가 난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는 것도 결국은 오래, 멀리, 상처 없이 빨리 걷고 싶어서다. 그럴수록 더 맛있는 밥, 더 좋은 밥, 더 값비싼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끼 밥은 다 똑같다. 밥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은가.

오늘 다시 내 발을 생각해본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 맨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와 캄캄한 것들의 허기와 울음을 달래주고 있는가. 아직도 두터운 명품 양말과 명품구두와 명품운동화로 내 맨발을 칭칭 감싸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겨울날 서울 종각 지하철역에서 보았던 맨발이 생각난다. 종이박스 밖으로 삐져나온 어느 노숙자의 맨발이. 그 노숙자는 지금 맨발의 삶을 잘 살고 있을까. 내 주변 어디에든 맨발의 삶은 존재하고 있다. 맨발의 삶을 잊지 않아야겠다.

〈불교문학연구소장〉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도원
부설
· 동 해 유 치 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전화 02)923-0582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자기 근본을 믿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마음의 샘물을 먹을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043)877-2900